

# 경북지역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문화지역 구분에 따른 공간분포 특성 분석\*

장동호\*\* · 임은진\*\*\*

## Analysis of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lassification of Cultural Region by Types of Weeding Songs in Gyeongbuk Region\*

Dong-Ho Jang\*\* · Eun-Jin Lim\*\*\*

**요약** : 본 연구는 1980년대를 중심으로 경북지역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 자료를 토대로 논매기소리 유형별 문화지역 구분에 따른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경북지역에서는 100개의 논매기소리 유형이 나타났으며, 이 중 공간분포 양상이 뚜렷한 10개 유형을 중심으로 문화지역별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북부산지지역에서는 입말 류, 방아 류, 소호니 류, 상사 류, 저러구한다 류가 안동을 소리문화 중심으로 낙동강과 그 지류 하천을 따라 분포한다. 중서부산지·평야지역에는 방아 류, 소호니 류, 저러구한다 류, 쾌장소리 류, 옹혜야 류, 노호세 류가 상주를 소리문화 중심으로 낙동강과 지류하천을 따라 분포한다. 남동부해안·평야지역에는 상사 류와 전례 류가 경산을 소리문화 중심으로 금호강과 지류하천을 따라 분포한다. 따라서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분포는 경북지역의 권역별 문화지역과 유사한 공간 분포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추후 논매기소리를 활용한 문화지역 구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논매기소리, 문화지역, 소리문화, 공간분포, 경북지역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weeding songs based on the weeding song data in the Gyeongbuk area recorded in the 1980's, to classify the cultural areas. In the Gyeongbuk area, 100 weeding song tributaries were found, and among these,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ased on 10 types that have distinct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The result of the study displayed that in the Northern mountainous region, there are Ipmaal Ryu, Banga Ryu, Sohoni Ryu, Sangsa Ryu, and Jeoreoguhanda Ryu types. These types distributed along the Nakdong River and the tributary rivers based on sori culture in Andong area. In the central western mountainous and plain areas, there are Banga Ryu, Sohoni Ryu, Sangsa Ryu, Jeoreoguhanda Ryu, Kwaejangsori Ryu, Ongheya Ryu, and Nohose Ryu types. These types distributed along Nakdong River and the tributary rivers based on Sori culture in Sangju area. In the southeastern coast and plains, Sangsa Ryu and Jeonrye Ryu types are distributed along Geumho River and the tributary rivers based on sori culture of Gyeongsan area. Accordingly, it was found tha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weeding songs had similar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s the cultural area of Gyeongbuk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fundamental data for the research of cultural area classification using Weeding songs in the future.

**Key Words** : Weeding song, Cultural area, Sori culture, Spatial distribution, Gyeongbuk area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3158).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gisrs@kongju.ac.kr)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jlim21@kongju.ac.kr)

## I. 서론

논매기 소리는 논이나 밭에서 잡초를 뽑으며 부르는 농업 노동요로 민중의 생활 및 정서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민요이다. 이러한 민요는 전문적인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불렀던 노동요로 민중들에 의해 생성된 노래이며, 민중의 정서가 잘 반영된 문화예술이다. 특히, 민요의 한 종류에 속하는 논매기소리는 농촌 지역민들의 정서와 사상, 가치관 등이 담겨 있다(이소라, 2002; 서영숙, 2019).

논매기는 파종 후 논에 잡초를 제거하는 행위로 벼농사의 시작과 함께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체로 세 번에 걸쳐 매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서는 ‘아이논매기’·‘두벌논매기’·‘세벌논매기’로 나누어진다(이소라, 2014; 김장수·장동호, 2020). 이들은 각각 노래의 속도와 사설이 구별되는데, 이러한 논매기소리 특성은 문화적·지형적인 환경이 반영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서 문화지역을 구분하기도 한다.

민요학계에서는 논매기소리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세종실록에 실린 기사의 ‘농요’라는 단어에서 그 출발점을 찾고 있지만, 그 이전 신라 말이나 고려 초에도 논매기소리의 기본적인 창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강동학, 1997). 또한, 최근에는 한국 고대 음악에 대한 기본 사료로 삼국사기 ‘악지’ 연구를 통해 신라음악이 연행주체에 따라 국가음악과 민간음악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중 민간음악을 민속악으로 구분하였다(전덕재, 2020; 정동락, 2021). 따라서 논농사 중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논매기의 특성상 노동의 고됨을 달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삼국시대 이전 벼농사의 초창기부터 농요가 서서히 형성되었으며, 19세기 무렵에 정착된 것으로 여겨진다(이소라, 1987; 2002). 하지만 명확하게 논매기소리에 대한 가사나 명칭 같은 기록은 문헌에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구전으로만 논매기소리가 이어져 왔다(강동학, 2009; 김장수·장동호, 2021).

과거 전통 촌락사회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마을 단위로 행해졌던 논농사는 농촌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공동체 행사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논매기소리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문화지역 구분에 적용하는 것은 농촌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이예슬·장동호, 2021). 즉, 논매기소리가 삼국시대 성립 이전 부족국

가 시대에 존재하였던 소국(小國) 지역공동체가 문화 중심이었다면, 고대 음악의 풍토의 영향을 받아 하나의 소리문화지역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이소라 등, 2021).

최근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기계화 농업 및 제조제 사용의 증가로 인해 논매기소리의 구전은 점차 사라져 갔다(김장수·장동호, 2020). 따라서 명맥이 끊어져가는 논매기소리를 잇기 위해 민요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양광호, 2001; 전지영, 2003; 이윤선, 2006; 최난경, 2009; 이소라, 2014; 2020; 최자운, 2016; 이성초, 2020).

전지영(2003)은 전남지방의 논매기소리와 모심기소리의 비교 연구를 통해 논매기소리가 보다 오래된 음악으로 이 지역의 토속적인 음악이며 판소리 음악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최난경(2009)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논매기소리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소리별로 평야지대와 산간지대의 논매기소리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소라(2014)는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의 논매기소리인 올라가세 류의 분포지역을 살펴보고, 올라가세 류의 분포 특성이 하천의 영향을 받아 전파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최자운(2016)은 논매기소리 중 상사소리가 영남지역 여러 마을에서 수용·전승되는데 노동 인력과 논매기 방식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 이 밖에 이성초(2020)는 논매기소리 중 충북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 방아소리를 대상으로 악곡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적 차이를 규명하였다.

최근 들어 지리학계에서도 논매기소리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공간분포 특성 또는 논매기소리의 문화지역 구분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유재진·장동호, 2014; 장동호·이소라, 2015; 박현수·장동호, 2016; 위눈술·장동호, 2016; 김장수·장동호, 2020; 윤혜연·장동호, 2021; 이예슬·장동호, 2021). 그중 유재진·장동호(2014)는 충남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얼카덩어리 류’의 문화 중심지로 충남 북서부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차령산맥의 연속성이 낮은 지역과 지류 하천의 유로를 따라 소리가 전파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위눈술·장동호(2016)는 전북에 나타난 논매기소리의 시·군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지형요소를 기반으로 논매기소리의 문화권을 금강문화권과 섬진강문화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김장수·장동호(2020)는 경남지방 ‘상사 류’의 분포지역 구분

연구를 통해 중부 남강 유역, 동강 및 황강 합수지역, 창녕군 북부 지역의 3개 문화 중심지로 분류하였으며, 이 밖에 이예슬·장동호(2021)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전남 지역 논매기소리 유형을 분류하고 광주, 목포, 순천, 강진 등 4개 문화권으로 구분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논매기소리는 지역의 사회적·문화적·자연적 특성을 잘 반영한 문화요소로, 같은 유형의 논매기소리를 공유하는 지역들은 동일한 문화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문화지역이란 하나의 동질지역으로 특정 문화요소를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임덕순, 1990). 전통적인 농업기반의 사회였던 우리나라는 논매기소리와 같은 노동요가 중요한 문화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동일한 유형의 논매기소리를 공유하는 지역들은 오랜 세월 동일한 문화지역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문화 및 생활권을 바탕으로 논매기소리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문화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문화요소로서 노동요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지리적 이해를 돕는 유의미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를 중심으로 경북지역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 자료를 토대로 논매기소리 유형별 문화지역 구분에 따른 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노동요로서 논매기소리의 문화요소로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문화지역 구분을

통해 논매기소리의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연구지역인 경북지방은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경상북도 지역으로 대한민국 남동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동해에 면하고, 북쪽과 서쪽에 접하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전라북도에는 소백산맥을 경계로, 경상남도와는 가야산, 비슬산, 운문산 등과 같은 산지를 경계로 한다(그림 1).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48′~131°52′, 북위 35°34′~37°33′이며, 대구광역시를 포함하는 경상북도의 면적은 19,917.22km<sup>2</sup>로 우리나라 전국 면적의 19.1%를 차지한다(경상북도청; 대구광역시청).

연구지역의 지질구조는 소백산지괴, 경상분지, 포함분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국립지리원, 1985). 소백산지괴는 선캄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 및 결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낙동강 본류의 서북쪽 지역 시·군이 해당된다. 경상분지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과 그 위에 덮는 화산암 및 이를 관입한 심성암으로 구성되며, 퇴적암은 낙동강 본류에서부터 동쪽으로 낙동통·신라통·불국사통으로 배열해 있다. 경상분지는 소백산지괴와 포함분지를 제외한 경상북도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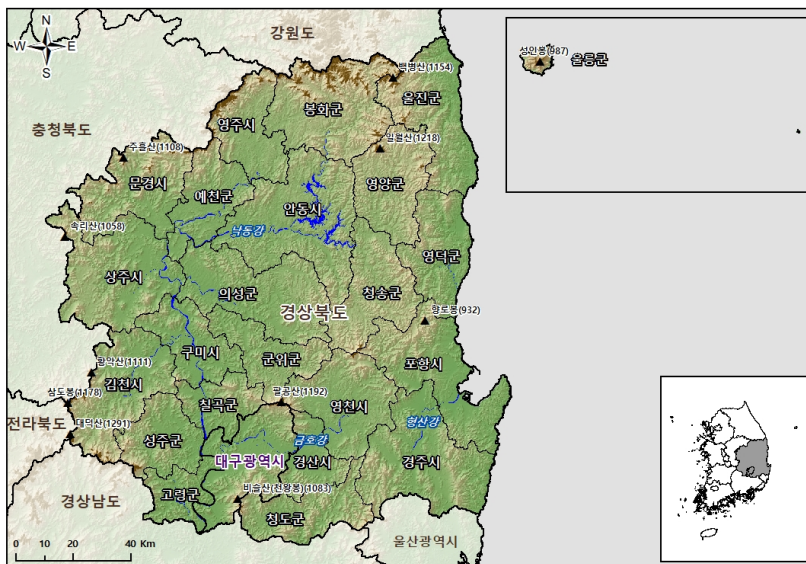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 위치도

된다. 포항분지는 포항시 동부에 해당되며 하부에는 양북군층, 상부에는 연일군층으로 나누어지고 해안지역은 신생대 제3기층이 분포한다. 중생층과 제3기층의 분포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이 두 층의 분포가 가장 넓은 지역이다(국립지리원, 1985).

지형을 살펴보면,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소백산맥이 남서로 뻗어내려 강원·충북·전북과 자연적 장벽에 의해 경북과 도의 경계를 이룬다. 동해안은 태백산맥의 여맥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달리고 있다. 또 남부의 경남과는 단지봉(1,327m)·가야산(1,430m)·비슬산(1,084m)·운문산(1,190m)·가지산(1,240m) 등의 산지가 가로막아 지형 상 하나의 큰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분지의 중앙은 낙동강이 여러 지류를 합류해 남쪽으로 관류하면서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은 대체로 서부산지·동부산지·중앙저지·해안평야 네 지형구로 구분할 수 있다(국립지리원, 1985).

서부산지는 소백산맥과 그 동사면의 화강암 구릉지대를 포함하며, 주맥은 1,000m 이상의 고도를 형성한다. 소백산맥의 산지들은 과거부터 남북 또는 동서 교통의 장애가 되었으며, 이들 산지들의 남동사면에는 영주·문경·예천·김천·성주·고령 등의 침식분지가 연속적으로 발달하였다. 동부산지는 태백산맥의 남단부 지역으로 태백산맥과 그 서사면의 산록구릉 및 팔공산지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산지의 서사면은 반변천·미천·위천의 지류들이 수지상의 하계망을 형성하고 지반을 개석해 낮은 구릉지와 하곡을 만들어서 봉화·영양·청송·진보·의성·영천 등의 침식분지를 형성하였다(국립지리원, 1985).

중앙저지는 낙동강 상류 분지지역과 대구 분지지역으로 구성된다. 낙동강 상류분지는 낙동강 분류와 내성천, 미천, 위천, 영강, 감천의 하류부에 이루어진 평야지대이며, 대구분지는 금호강과 백천이 만든 평야로 그 중앙에는 대구, 그 동쪽에 영천과 경산, 서쪽에는 성주와 고령 등의 도시가 발달하였다. 이 밖에 동해안을 따라서는 해안평야가 소규모로 발달하였다(국립지리원, 1985).

연구지역인 경북지방은 대하천을 중심으로 한 중앙저지의 평야지역과 동부 및 서부 산지지역 및 해안평야 지역이 존재하며, 이들 주요 지맥으로 인한 하천 및 산지 등의 지형적 경계가 나타남에 따라 문화지역 특성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논매기소리의 공간 분포 역시 지형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경북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 논매기소리를 유형별로 문화지역을 구분하고, 문화지역별 논매기소리의 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북지역의 문화권 구분 특성을 분석하였다. 문화권 구분에는 기존에 구분된 경제권, 문화권 및 생활권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북지역의 논매기소리와 관련된 문화지역을 문화·생활권과 지리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지형적 요소와 행정구역 분석을 통해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민족음악연구소에 의해 1980년대를 중심으로 경북지역에서 집중 채록된 논매기소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DB화하였다. 경북지역에서는 총 1,118곡의 논매기소리가 채록되었으며, 논매기소리 유형별 공간분포 특성 분석에는 총 100개의 유형을 사용하였다. 특히, 분류된 논매기소리 유형을 빈도수에 따라 상위 20개에 해당하는 유형을 이용하여 경북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논매기소리의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1,118곡 논매기소리의 녹음지역 주소를 지리좌표 형식의 공간자료로 변환하여 각 유형별 논매기소리를 지도화하였다. 또한 논매기소리의 전파특성 분석을 위해 산지와 하천 등의 지형요소를 반영한 DEM(Digital Elevation Model, 수치표고모형)과 하계망도 등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북지역의 전반적인 지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기구축된 경북지역의 유형별 논매기소리 공간자료와 지형자료를 활용하여 소리 수가 19곡 이상으로 나타난 상위 10개 유형에 대한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북지역의 논매기소리 문화지역을 설정하여 각 문화지역별 분포 특성이 뚜렷한 10개 유형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문화지역 구분의 요소로서 논매기소리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III. 경북지역의 문화지역 구분 및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분포 특성

#### 1. 경북지역의 문화지역 구분

경북지역의 문화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질구조와 지형적 요소 및 행정구역 경계 분석이 필



요하다. 행정구역은 하천과 산의 능선을 경계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태백 및 소백산맥과 낙동강 및 주요 지류하천 등은 문화 교류 및 전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화지역 구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를 기반으로 한 문화지역 구분은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문화 특성의 지리적 영향 범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이기태, 2010).

경북지역의 북부에 위치한 봉화군은 동쪽으로 태백산맥의 묘봉(1,169m)·삿갓봉(1,119m)·백병산(1,153m)·오미산(1,077m) 등의 험준한 산지들이 위치하였으며, 북쪽과 북서쪽 역시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지인 연화산(1,054m)·구룡산(1,346m)·삼동산(1,180m)·선달산(1,239m)으로 연결된다. 반면에 남서쪽은 지질구조선의 영향을 받아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과 낙화암천 등의 하천들과 구룡성 산지들 사이의 낮은 고개들로 인하여 동쪽과 북쪽보다 교류가 잦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경시의 경우에는 북부와 서부에 소백산맥의 주봉인 문수봉(1,162m)·대미산(1,115m)·조령산(1,026m)·백화산(1,063m)·조항산(954m) 등의 비교적 높은 산지들이 위치한다. 따라서 이들 산지들은 인접한 북쪽·서쪽의 충북 단양군·충주시·괴산군·보은군 등과의 교류에 방해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 남쪽 및 남동쪽과는 낙동강과 그 지류인 영강의 낮은 평야지대를 따라 상주시와 예천군과는 교류가 활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

부의 의성군과의 교류는 천마산(274m)과 낙동강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낙동강이 형성시킨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지역의 지역구분에 기존에 사용된 문화·경제 및 생활권 구분 특성을 살펴보면, 국립지리원(1985)에서는 경북지역의 생활권을 재화의 거래, 통근 및 통학, 통신, 통화, 의료 및 생활이용시설을 고려하여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그림 2). 즉 북부산악지대, 서남부평야지대, 동부해안지역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북부산악지대에는 상주, 봉화, 문경, 예천, 영양, 의성, 청송, 영주, 안동이 있다. 서남부평야지대에는 구미, 김천, 경산, 달성, 성주, 영천, 칠곡, 군위, 고령, 청도가 있으며, 동부해안지역은 포항, 울진, 영덕, 경주, 울릉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국립지리원(1985)에서는 경북지역의 지역 특색과 지리적 연계성을 등을 기반으로 6개 권역으로 지역을 세분하였다. 즉, 북동지역(봉화, 울릉, 울진, 영덕, 영양, 청송), 북서지역(상주, 문경, 예천), 중북부지역(안동, 영주, 의성, 군위), 남동지역(경주, 포항), 남서지역(선산, 고령, 김천, 성주), 대구 부근지역(구미, 영천, 청도, 경산, 칠곡) 등으로 구분하였다(그림 3).

이 밖에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기초경계권을 바탕으로 경북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주로 협력 사업권, 산업구조, 개발 계획성 등의 기준을 활용하여 구분하였다(국립지리원, 1985). 4개 권역으로는 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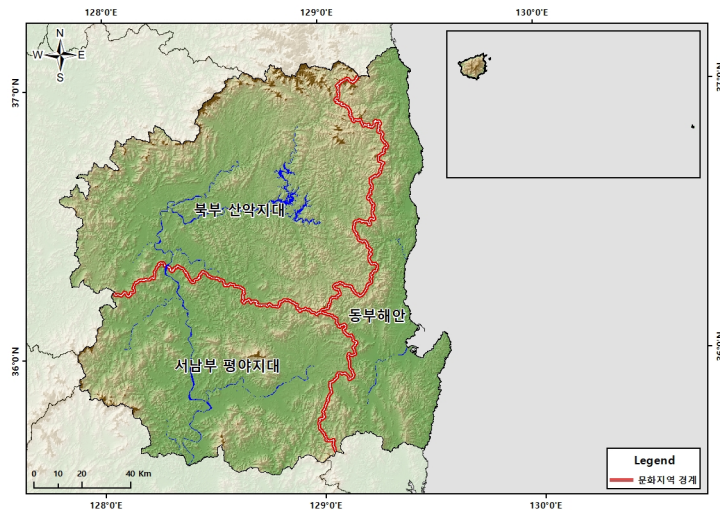


그림 2. 경북지역의 생활권 구분도

출처 : 국립지리원,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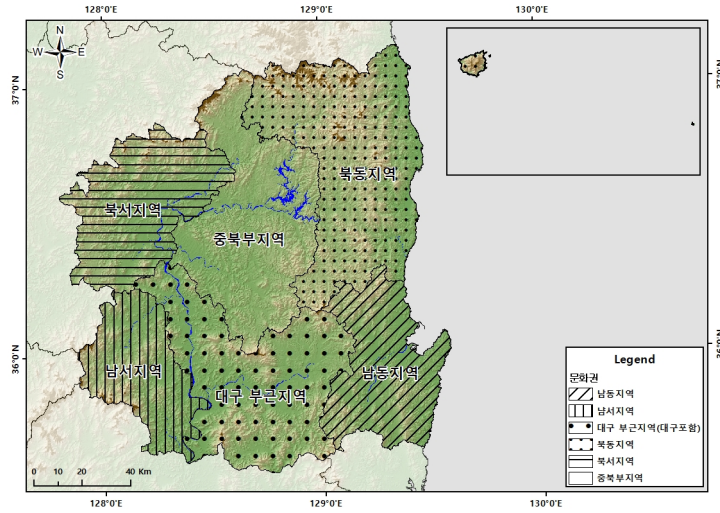


그림 3. 경북지역의 지역특색에 따른 지역구분도

출처 : 국립지리원,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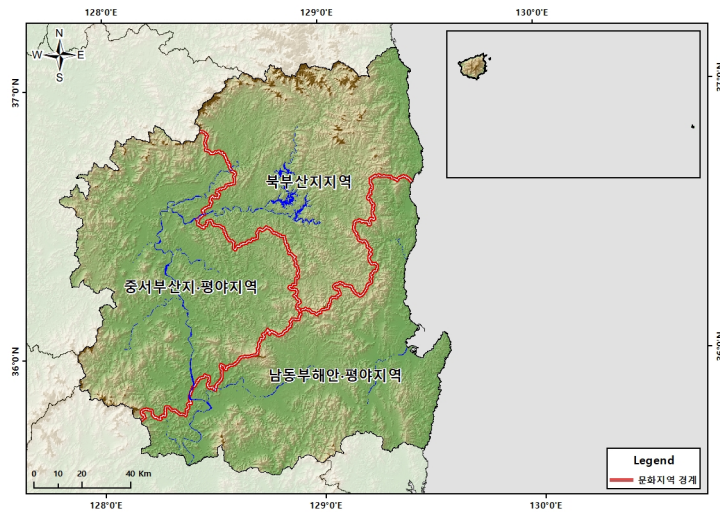


그림 4. 경북지역의 문화지역 구분도

자원권(봉화, 영주, 예천, 문경, 안동, 영양, 청송), 중서부내륙권(상주, 김천, 구미, 의성, 군위), 대구근교권(청도, 경산, 영천, 칠곡, 성주, 고령), 동중부 연안권(울진, 영덕, 포항, 울릉, 경주) 등이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의 논매기소리 공간 분석을 위한 문화지역 구분을 위해지질구조와 관련된 지형적 요소와 행정경계 등이 반영된 국립지리원(1985)에서 구분한 생활권과 문화권을 기초로 총 3개 문화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즉, 경북지역의 문화지역은 북

부산지지역, 중서부산지·평야지역, 남동부해안·평야지역으로 구분하였다(그림 4). 먼저, 북부산지지역은 영주, 봉화, 울진, 영양, 안동, 청송 순으로 구성되고, 중서부산지·평야지역은 문경, 예천, 상주, 구미, 김천, 칠곡, 성주, 의성, 군위로 구성된다. 남동부해안·평야지역은 울릉, 영덕,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도, 대구, 고령으로 구성된다. 설정한 문화지역을 바탕으로 경북지역의 각 문화지역에 따른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적 분포 양상을 분석하였다.

표 1. 경북지역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소리 개수(상위 20개)

유형	소리 개수(%)	유형	소리 개수(%)
칭칭이 류	218(19.5)	아오우 류	17(1.5)
방아 류	158(14.1)	잘하네 류	13(1.1)
상사 류	136(12.1)	에이히여 오오희야 류	12(1.0)
입말 류	85(7.6)	에이오 오희야 류	10(0.9)
소호니 류	71(6.3)	에이요흥 오희야 류	10(0.9)
저러구한다 류	57(5.1)	넙차 류	9(0.8)
옹혜야 류	35(3.1)	봉혜야 류	9(0.8)
전례 류	35(3.1)	사하소리 류	9(0.8)
쾌장소리 류	28(2.5)	에히용 류	9(0.8)
노호세 류	19(1.6)	위소리 류	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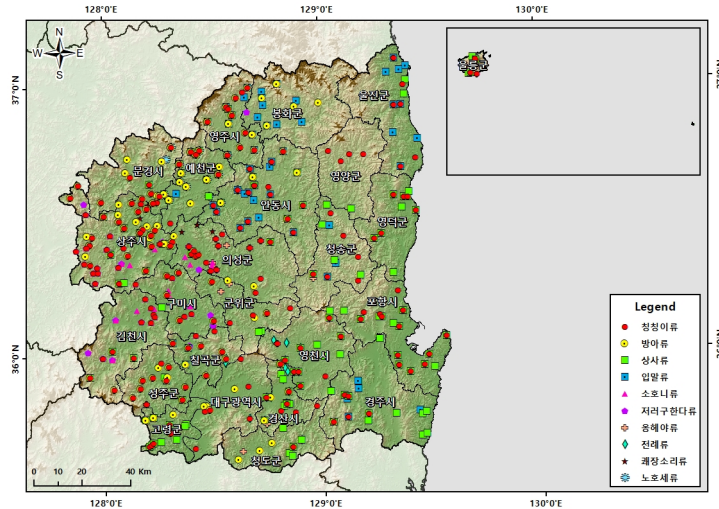


그림 5. 경북지역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분포

## 2. 경북지역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분포 특성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 중 소리의 빈도수가 높은 상위 10개 유형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그림 5). 먼저, 경북지역에서 수집된 논매기소리는 총 10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논매기소리 유형에 해당하는 소리의 수를 분석한 결과, 총 1,118개의 소리가 나타났다. 이 중 소리의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칭칭이 류(218개), 방아 류(158개), 상사 류(136개), 입말 류(85개), 소호니 류(71개), 저러구한다 류(57개), 옹혜야 류(35개), 전례 류(35개), 쾌장소리 류(28개), 노호세 류(19개) 등이 있다(표 1).

먼저,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은 소리가 채록된 칭칭이 류는 봉화군을 제외한 경북 전 지역에서 고른 분포 특성이 나타났다(그림 6(a)). 그중에서도 낙동강과 그 지류 하천 유역의 넓은 평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채록 지역으로는 상주를 중심으로 예천, 구미, 칠곡, 성주 등의 지역에서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주변의 영주, 안동, 군위, 영천, 경산 등의 지역에서도 많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해안평야가 발달한 포항, 영덕, 울진 등지에서도 일부 발견되었다. 칭칭이 류는 주로 경북을 관통하는 낙동강과 그 지류 하천 주변의 넓은 평야지역에서 분포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보인 방아 류는 북부 산악지역과 낙동강 하류부의 주변의 평야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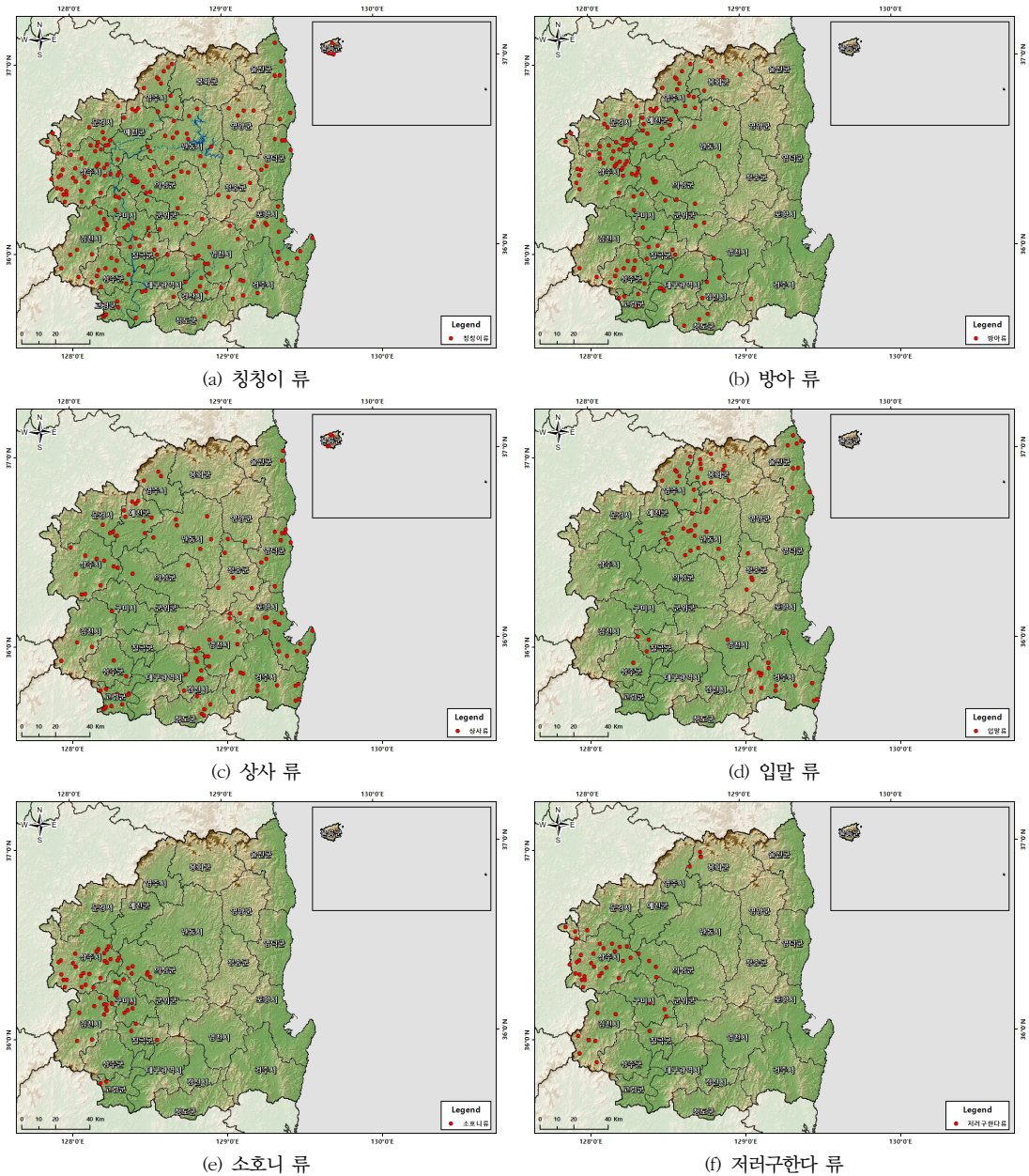


그림 6. 경북지역의 논매기소리 유형별 분포도

분포하였다(그림 6(b)). 특히, 상주를 문화 중심으로 그 주변의 예천, 영주, 봉화 등의 백두대간을 따라 많이 나타났으며, 낙동강 하류부의 성주, 칠곡, 고령 등에서도 많은 분포를 보였다. 방아 류의 문화중심지가 충북 괴산 및 충주와 경기도 남동부인 것으로 보아(이소라 등, 2017b)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죽령·조령 등의 고개를 통

해 소리가 전파된 후 상주를 중심으로 낙동강을 따라 경상북도의 남북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사 류는 경북지역의 남동부와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그림 6(c)). 그중에서 느린상사 류는 청도, 경산, 영천, 경주, 포항, 청송, 울릉, 안동, 영덕에서 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앞걸말 상사 류는 낙동



강 본류와 황강이 만나는 지역과 낙동강과 양산천, 밀양강 주변부의 물길을 따라 형성된 충적평야가 발달한 경남 지역에서 주로 분포한다(이소라 등, 2017a). 따라서 이들 지역과 낙동강으로 연결된 경북의 고령, 성주 등의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말 류는 북부산지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분포한다(그림 6(d)). 특히 안동, 영주, 봉화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이들 지역이 문화중심지로 보이며, 인접한 울진, 예천, 청송 등에서 일부 분포 특성이 나타났다. 이 밖에 경주에서도 다수의 입말 류 분포지역이 나타난다. 반면에 입말 류는 서부산지지역 및 중부 내륙, 남부평야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입말 류의 문화중심지가 충북 단양과 충주 등으로 인접 지역과 문화 교류가 진행되지만(이소라 등, 2017b), 주변의 높은 산지로 인해 내륙과 서쪽으로의 문화 교류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호니 류는 상주, 김천을 비롯하여 의성, 칠곡, 고령과 인접한 영동, 청주 등의 충북 일부지역에 분포한다(그림 6(e)). 소호니 류의 주 분포지역은 상주 일대로 보이며, 구미의 소호니 류는 주로 상주와 인접한 구미의 북부지역과 낙동강 주변의 평야지역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중심지는 상주와 구미에 해당하며, 인근의 김천, 의성, 칠곡, 충북 영동 및 청주 등지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이소라 등, 2017b). 즉, 소호니 류는 병성천과 이안천과 위천 등이 합류하는 낙동강 중류 지방이 문화중심지로 여겨지며, 낙동강의 지류 및 낮은 고개를 통해 충북 및 경북 남부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여겨진다.

저러구한다 류는 상주와 구미의 선산, 김천, 충북의 남부지역 등지에 주로 분포하며, 의성, 군위, 문경 등에도 일부 나타난다(그림 6(f)). 상주 내에서는 서부가 동·남·북부지역에 비해 우세하며, 그중에서도 서부 상주와 인접한 보은이 문화의 중심지이다(이소라 등, 2017b). 경북지방에서는 상주와 영동에 접한 김천에서 우세하고 동쪽으로 의성이나 구미와 군위로 가면 빈도수가 작게 나타난다. 저러구한다 류는 소호니 곡과 연관이 있어서 분포 및 양상 역시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낙동강 중류 지방인 상주 지역이 문화중심지로 여겨지며, 낙동강의 지류 및 낮은 고개를 통해 경북 남부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 옹혜야 류는 경북의 대표적인 농요 중 하나로, 달성(대구), 칠곡, 성주, 군위를 본고장으로 하는 타작소

리로 널리 알려졌다. 낙동강 중류 지역에서 발생한 옹혜야 류는 하천을 통해 그보다 상류지역인 의성으로 전파되었으며, 이후 의성과 인접 지역으로 낮은 고개를 통한 소규모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례 류는 경산이 문화의 중심지로 인접한 영천, 칠곡 등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들 지역은 금호강 주변에 형성된 중앙부의 평야지대인 경산이 중심이 되어 주변 경계부의 비교적 낮은 고개를 따라 인근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산은 고대 부족국가 압록국이 존재하였던 곳으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논매기소리의 시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쾌장소리 류는 영강 하류와 내성천 하류 일대가 문화중심지로 여겨지며, 곡저 사이를 흐르는 하천 주변에 위치한 곳이나, 낮은 능선부에 위치하는 고개를 통해 주변 인접지역들로 소리의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노호세 류는 예천군을 중심으로 인접한 상주의 공검이나 중동, 안동의 풍산과 의성의 안사·다인·신평으로 일부 전파 소리의 전파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 3. 경북지역 논매기소리의 문화지역별 공간 분포 특성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 문화지역 구분에 따른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논매기소리 유형은 소리의 빈도수가 높은 상위 20개 유형 중 소리의 분포가 뚜렷하며, 높은 빈도가 나타나는 8개 유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논매기소리 유형은 방아 류, 상사 류, 입말 류, 소호니 류, 저러구한다 류, 노호세 류, 옹혜야 류, 전례 류 등이 있다. 이중 문화권별·유형별 공간분포 특성이 가장 모식적으로 나타나는 5개 유형(방아 류, 상사 류, 입말 류, 소호니 류, 저러구한다 류)을 중심으로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그림 7).

경북지역의 문화지역별로 나타난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중북부산지지역에서는 입말 류를 문화 중심지로 방아 류, 상사 류, 노호세 류가 해당 문화지역에 일부 분포하였다. 중서부산지·평야지역은 방아 류를 문화 중심지로 소호니 류, 옹혜야 류, 저러구한다 류가 일부 분포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동부해안·평야지역은 상사 류를 문화 중심지로 전례 류, 방아 류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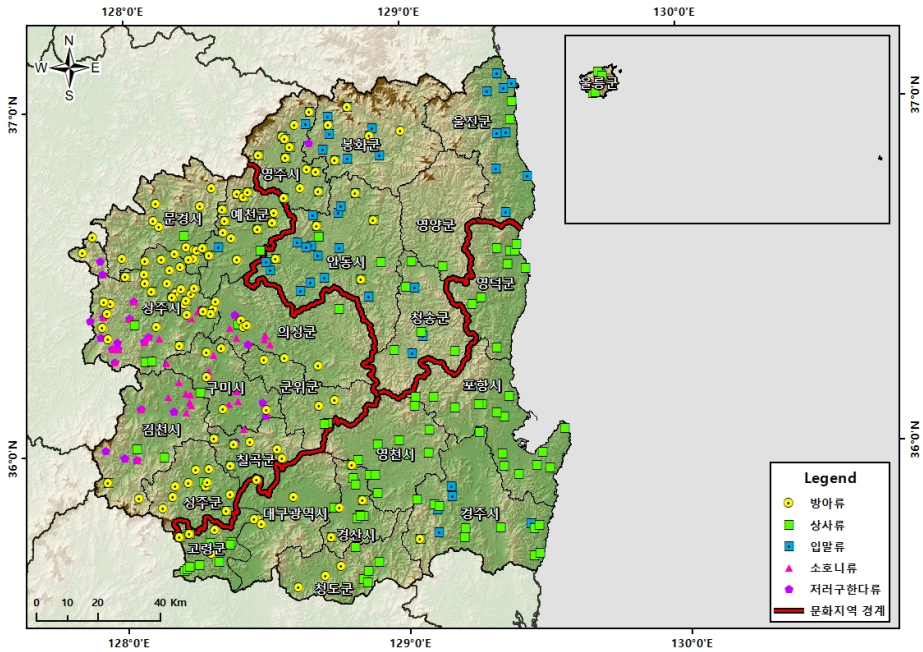


그림 7. 경북지역 논매기소리의 문화권별·유형별 공간분포

### 1) 북부산지지역

북부산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논매기소리 유형은 입말 류를 중심으로 방아 류, 소호니 류, 상사 류, 저려구한다 류 등이 있다. 북부산지지역과 인접한 서부에는 방아 류가 영주, 예천, 문경, 상주를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며, 남서부에는 노호세 류가 예천을 중심으로 영주, 안동, 문경 등의 주변지역에 일부 분포 특성이 나타난다(그림 8). 이 밖에 북부산지지역의 중남부에 위치한 안동, 청송을 중심으로도 상사 류가 분포한다.

먼저 입말 류의 문화지역은 북부산지지역에 해당하는 안동, 영주, 봉화 등의 분지지역과 울진의 해안평야 지역이다. 입말 류 소리 대부분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멀게는 남쪽으로 청송, 칠곡, 영천, 경주까지도 나타난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울진, 봉화, 영주로 이어지는 소백산맥 자락의 주요 고개들은 인접한 강원도와 충청북도로 입말 류 소리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안동을 관통하는 낙동강과 그 지류인 반변천 주변을 따라서는 범람원이 형성되어 있고, 서부에는 낮은 구릉성 산지들 사이로 소하천이 흘러 그 주변에 평야지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봉화와 영주를 연결하는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과 영주를 관통하는 서천 주변 지역 역시 일찍부터 논으로 개간되어 농업문화가 발달하기에 적합

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따라서 안동을 중심으로 낙동강과 그 지류 하천을 따라 입말 류의 전파와 확산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울진의 입말 류는 해안을 따라 강원도 삼척과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칠보산이 가로 막고 있어 영덕으로 더 이상의 전파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방아 류의 문화지역은 경북지역의 북서부인 상주와 예천을 포함하는 북서산지·평야지역 일대이다. 멀게는 청도와 경주에서도 일부 나타나지만, 이는 지리적인 요인에 따른 전파가 아닌 이주와 같은 특별한 요인으로 인한 전파로 판단된다. 북부산지지역에서 방아 류는 영주, 봉화, 안동 등지에서 분포하며, 주로 낙동강과 그 지류 하천을 따라 문화지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울진, 영양, 청송 등지로는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지로 인해 더 이상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노호세 류는 예천이 문화의 중심지로 인접한 영주, 안동, 문경 등지로 일부 논매기소리의 전파가 이루어졌으며, 상사 류는 경산, 영천이 문화의 중심지로 남동해안·평야지역에서 넓은 분포 특성이 나타난다. 북부산지지역에서는 안동을 중심으로 영주, 영양 등지에서 일부 분포 특성이 나타나지만, 영양, 울진 등은 소규모로 나타나서 험준한 태백산맥이 소리 전파의 장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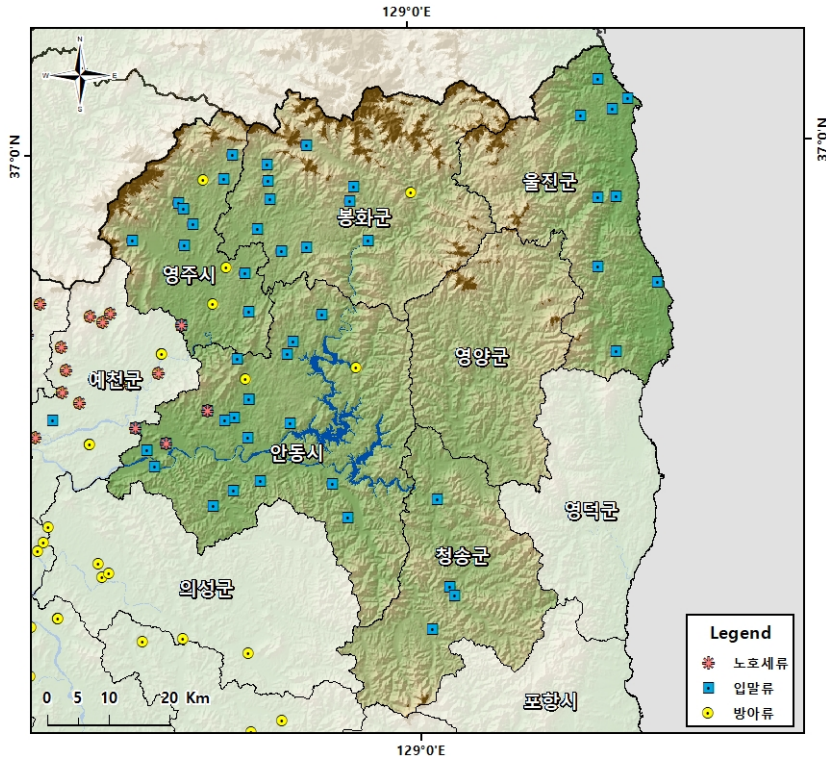


그림 8. 북부산지지역의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분포

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여 보면, 북부산지지역은 다양한 논매기소리가 분포하지만, 그중에서도 입말 류가 대표적인 논매기소리 문화지역으로 볼 수 있다. 입말 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접한 충북 단양, 충주와 강원 태백, 삼척 등지와 주요 고개와 하천 및 해안 등으로 연결되어 소리의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동이 입말 류 소리 문화의 중심으로 낙동강의 주요 지류하천을 따라 북쪽으로 영주, 봉화지역으로 전파가 이루어졌고, 하류로는 멀리 성주, 고령을 지나 경남 창녕으로도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 2) 중서부산지·평야지역

중서부산지·평야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논매기소리 유형은 방아 류와 소호니 류 및 저러구한다 류 등이며, 이 밖에 옹혜야 류, 노호세 류 등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그림 9). 중서부산지·평야지역 전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방아 류는 상주, 예천, 성주를 중심으로 고른 분포 특성이 나타난다. 반면에 소호니 류와 저러구한다

다 류는 소백산맥의 동쪽 사면에 해당하는 상주를 중심으로 낙동강과 주요 지류를 따라 구미, 김천, 의성 등의 주변지역으로 전파되는 분포 특성이 나타난다. 이 밖에 경북의 지리적 중심부에 해당하는 의성, 군위를 중심으로 옹혜야 류, 예천, 문경으로는 노호세 류가 일부 나타난다.

먼저, 본 문화지역에서 가장 고른 분포 특성이 나타나는 방아 류는 낙동강과 그 지류인 내성천, 영강이 만나는 상주를 중심으로 상류로는 문경, 예천, 영주, 안동, 봉화까지 연결되며, 하류로는 구미, 의성, 군위, 칠곡, 성주, 고령, 대구까지도 나타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주, 문경으로 이어지는 소백산맥은 소리 전파의 장벽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일부는 고개를 통해 전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즉, 본 문화지역과 인접한 보은과 괴산이 충북의 방아 류의 문화 중심지로 알려졌는데(이소라 등, 2017b), 소백산맥의 주요 고개인 조령, 화령 등을 통해 상주, 문경지역의 방아 류가 이들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주는 낙동강의 본류와 영강이 합수하여 주변에 넓은 범람원이 형성되었고, 서부에도 낮은 구릉성 산지들 사이로 소하천이 흘러 그 주변에 곡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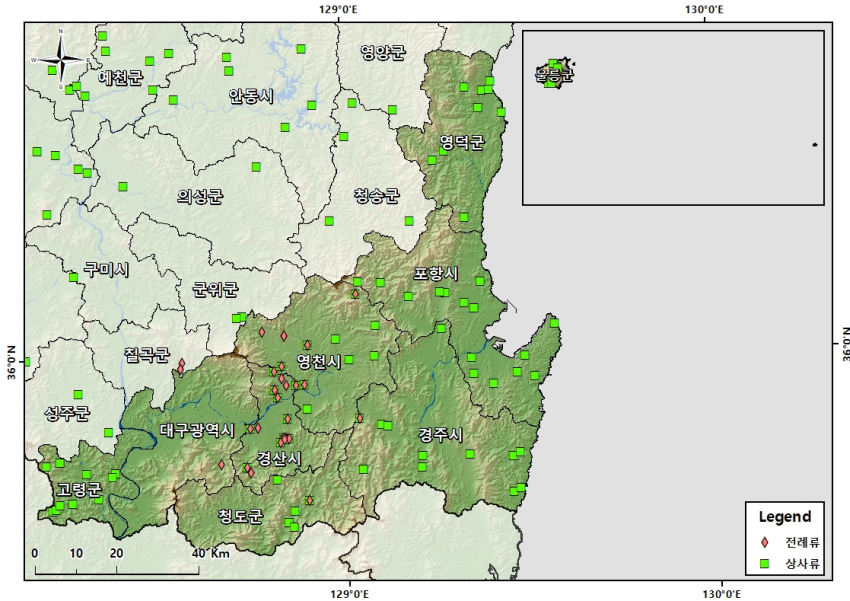


그림 10. 남동부해안·평야지역에 해당하는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분포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 상사 류는 경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부인 영천, 경주, 대구, 청도, 고령 등의 지역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반면에 전례 류는 경산을 중심으로 금호강의 주요 지류를 따라 인접한 영천, 청도, 대구, 칠곡 등지의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난다. 이 밖에 방아 류는 중서부산지·평야지역과 인접한 고령, 대구 등지에서 일부 나타나며, 웅혜야 류 역시 중서부산지·평야지역과 인접한 고령, 대구, 영천 등지에서 소리 전파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본 문화지역에서 가장 고른 분포 특성이 나타나는 상사 류의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경산과 영천은 전형적인 침식분지 지역으로 산지 사이를 관류하는 금호강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평야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경산은 과거 삼한시대부터 소국인 압독국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으로 일찍부터 농업문화가 발달하였다(이종욱, 1987). 따라서 노동요인 논매기소리 역시 일찍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압독국이 신라에 복속된 이후 상사 류는 금호강의 상류와 그 지류 하천을 따라 북쪽으로 소리문화의 전파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라의 중심인 동쪽의 경주 일대로 전파가 이루어졌고 동해안을 따라 포항, 영덕, 울릉까지 전파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례 류는 남동부해안·평야지역 중에서도 경산을 중

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이 또한 평지와 산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사 류에 비해 훨씬 소리의 빈도수가 낮으며, 경산과 인접한 영천, 청도, 대구 등의 지역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 외에는 분포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전례 류는 경산을 문화 중심으로 금호강을 따라 영천, 대구 등지로 일부 전파가 진행되지만, 북쪽 및 남쪽에 높은 산지가 가로막고 있어 더 이상의 전파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여 보면, 남동부해안·평야지역에는 다른 소리 문화 지역에 비해 다양한 논매기소리가 분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산을 중심으로 상사 류와 전례 류가 일찍부터 발달하여 대표적인 논매기소리 문화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사 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압독국이 위치한 경산시 압량읍이 소리의 문화 중심으로 금호강과 그 지류 하천을 따라 전 지역으로 소리 전파가 이루어졌다. 즉, 동쪽으로는 멀리 울릉까지, 남쪽으로는 경남 합천, 창녕, 밀양과 울산 등지로, 서쪽으로는 충북, 보은, 영동 등으로, 북쪽으로는 강원, 태백, 영월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이소라 등, 2017a; 2017b). 이 밖에 전례 류 역시 경산이 소리문화의 중심지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 IV. 결론

논매기소리에는 사회적·문화적·지리적 환경이 반영되며, 과거 삼한시대부터 내려오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문화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논매기소리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문화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농촌사회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경북지역 논매기소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경북지역 문화지역 구분에 따른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경북지역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분포 특성 분석에 사용된 논매기소리 유형은 소리의 빈도수가 높은 칭칭이 류, 방아 류, 상사 류, 입말 류, 소호니 류, 저러구한다 류, 옹혜야 류, 전례 류, 쾌장소리 류, 노호세 류 등 상위 10개 유형이다. 각 유형들의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칭칭이 류는 봉화군을 제외한 경북 전 지역에서 고른 분포 특성이 나타났으며, 주로 경북을 관통하는 낙동강과 그 지류 하천 주변의 넓은 평야지역과 해안평야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방아 류는 북부 산악지역과 낙동강 하류부 주변의 평야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였는데, 특히, 상주·예천을 문화 중심으로 그 주변의 영주·봉화 등의 백두대간을 따라 분포 특성이 나타났다. 상사 류는 경북지역의 남동부와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입말 류는 북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분포한다.

소호니 류는 상주지방을 중심으로 인접한 구미의 북부지역과 낙동강 주변의 평야지역에서 나타났으며, 낙동강의 지류 및 낮은 고개를 통해 충북 및 경북 남부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저러구한다 류는 상주를 문화중심지로 구미의 선산, 김천·충북의 남부지역 등지에 주로 분포하며, 의성·군위·문경 등에도 일부 나타났다. 옹혜야 류는 낙동강 중류 지역에서 발생하여 하천을 통해 상류지역인 의성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전례 류는 경산이 문화의 중심지로 인접한 영천·칠곡 등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쾌장소리 류는 영강 하류와 내성천 하류 일대가 문화중심지로 여겨지며, 노호세 류는 예천군을 중심으로 인접한 상주의 공검이나 중동, 안동의 풍산과 의성의 안사·다인·신평으로 일부 소리의 전파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지역의 논매기소리 유형별 문화지역에 따른 공간 분포 특성 분석 결과, 북부산지지역에서는 입말 류를 중

심으로 방아 류, 소호니 류, 상사 류, 저러구한다 류 등이 분포한다. 입말 류는 인접한 충북 단양, 충주와 강원 태백, 삼척과 주요 고개 및 해안 등으로 연결되어 소리의 전파가 이루어졌다. 특히, 안동이 입말 류 소리문화의 중심으로 낙동강의 주요 지류하천을 따라 북쪽으로 영주, 봉화지역으로 전파가 이루어졌고, 하류로는 멀리 성주, 고령을 지나 경남 창녕으로도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서부산지·평야지역에는 방아 류를 중심으로 소호니 류 및 저러구한다 류, 옹혜야 류, 노호세 류 등 다양한 논매기소리 유형이 나타났다. 방아 류는 상주에서 인접한 충북 괴산, 보은 등지와 주요 고개를 통해 이들 지역으로 소리의 전파가 이루어졌다. 특히, 상주를 중심으로 낙동강과 그 지류 하천을 따라 소리가 전파하고, 구릉성 산지들 사이의 곡지평야나 고개 등을 통해 멀리 경남지역까지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소호니 류와 저러구한다 류 역시 상주가 소리문화의 중심지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남동부해안·평야지역에는 상사 류를 중심으로 전례 류와 일부 방아 류와 옹혜야 류가 산발적으로 분포하였다. 상사 류는 압록국이 위치한 경산시 압량읍이 소리의 문화 중심으로 금호강과 그 지류 하천을 따라 전 지역으로 소리 전파가 이루어졌으며, 전례 류 역시 경산이 소리문화의 중심지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 보면, 경북지역의 논매기소리 문화지역은 중북부산지지역, 중서부산지·평야지역, 남동부해안·평야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안동, 상주, 경산을 각각 이들 문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은 과거 삼한시대부터 소국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농업 수리시설이 건설되어 농업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하였으며, 노동요인 논매기소리 역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논매기소리는 삼한시대부터 지역공동체인 소국의 중심지가 문화의 중심이었으며, 고대 음악 풍토의 영향을 받아 하나의 소리문화지역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 사용된 대부분의 논매기소리 유형은 설정한 문화지역 경계와 유사한 분포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칭칭이 류 등 일부 유형들은 문화지역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분포 패턴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유형들을 본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문화지역 구분에서 사용된 시·군 단위의 스케일은 논매기소리의 중심지 파악

이나 전파 분석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시·군 단위의 스케일이 아닌 읍·면 단위의 스케일을 기준으로 논매기소리 유형을 분류하거나 다양한 지형 경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좀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지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북지역에 나타나는 논매기소리 유형들을 좀 더 세부 소리 유형별로 고찰하거나 고대 부족 국가시대 소국의 경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소리문화 지역 구분 및 음악지리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연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동학, 1997, “한국 민요의 사적 전개 양상” 구비문학연구, 5, 97-122.
- 강동학, 2009, “한국의 민요연구 역사와 문제의식의 추이” 한국민요학, 27, 37-82.
- 국립지리원, 1985, 「한국지지, 지지편찬위원회.
- 김장수·장동호, 2020, “경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 특성 연구: 상사 류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9(2), 313-323.
- 김장수·장동호, 2021, “전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및 문화지역: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지(세월이)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0(2), 219-236.
- 박현수·장동호, 2016, “지형요소를 활용한 충북 논매기소리의 전파 특성 분석: 짧은방아 및 상사류를 사례로,” 한국지형학회지, 23(2), 61-70.
- 서영숙, 2019, “한국민요 아카이브 및 라키비움의 구상,” 한국민요학, 57, 41-72.
- 양광호, 2001, “경상북도 지역의 토속민요에 나타난 시김새 연구-논매기 소리를 중심으로,” 국악교육연구, 19, 60-146.
- 위눈술·장동호, 2016, “지형요소를 기반으로 한 전북지역 논매기소리의 공간분포 특성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6(2), 83-98.
- 유재진·장동호, 2014, “충청남도 남동부에서 나타나는 논매기소리의 분포와 전파에 관한 연구: 지형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21(2), 11-23.
- 윤혜연·장동호, 2021, “지형요소를 활용한 전라도 논매기소리의 공간분포와 전파에 관한 연구: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지(세월이)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28(2), 71-85.
- 이기태, 2010, “도 경계지역 문화요소의 분포와 문화권역 동체의 대상신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519-558.
- 이성초, 2020, “충북 논매기소리 중 방아소리의 음악적 특징” 한국민요학, 58, 73-105.
- 이소라, 1987, “농사와 농요의 관계,” 한국민속학, 20, 157-162.
- 이소라, 2002, “민속음악과 예술: 노동요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23, 103-135.
- 이소라, 2014, “올리가세 류의 논매기소리 고찰” 한국민요학, 40, 145-168.
- 이소라, 2020, 「전남지방 논매기소리 총서(상)」, 공주: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대전: 민족음악연구소
- 이소라·임은진·장동호·변정민, 2021, 「경북지방 논매기소리 총서(하)」, 공주: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대전: 민족음악연구소
- 이소라·장동호·변정민, 2017a, 「경남지방 논매기소리 총서(하)」, 공주: 공주대학교; 대전: 민족음악연구소
- 이소라·장동호·변정민, 2017b, 「충북지방 논매기소리 총서」, 공주: 공주대학교; 대전: 민족음악연구소
- 이예슬·장동호, 2021, “전남지역 문화권 구분에 따른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분포 특성 분석,”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1(2), 66-84.
- 이윤선, 2006, “소포만의 간척기(干拓期) 민속음악 변화연구: 남도들노래, 진도만가, 진도북놀이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27, 29-52.
- 이종욱, 1987, 「신라국가형성사연구」, 서울: 일조각.
- 임덕순, 1990, 「문화지리학: 문화와 지리와의 관계」, 서울: 범문사.
- 장동호·이소라, 2015, “충청남도 논매기소리의 지리적 공간 분포 특성 분석”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5(3), 1-14.
- 전덕재, 2020, 「한국 고대 음악과 고려악」, 서울: 학연문화사.
- 전지영, 2003, “전라남도 민요의 분포와 특징: 논매기소리와 모심기소리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2, 325-347.
- 정동락, 2021, “우륵 12곡의 새로운 이해-음악적 측면에서 본 편성원칙과 영역편제의 실상-,” 한국고대사탐구, 38, 379-414.
- 최난경, 2009, “논매는 소리의 기능별 분류와 분포에 대한 고

정동호·임은진

찰: 경상도 논매는 소리와 전라도 논매는 소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1, 295-336.

최자운, 2016, “영남지역 무형문화재 지정 논매기 상사소리의 수용에 관한 현장론적 연구” 한국민요학, 46(1), 237-266.

경상북도청, <https://www.gb.go.kr>

대구광역시청, <https://www.daegu.go.kr>

교신 : 임은진,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56,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ejlim21@kongju.ac.kr)

Correspondence : Eun-Jin Lim, 32588,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ejlim21@kongju.ac.kr)

투고접수일: 2022년 5월 31일

심사완료일: 2022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5일